

南孝溫의 漢詩를 통해 본 삶의 방식

- 상처와 치유를 중심으로 -

이현정¹, 이준규²

¹부산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²부산대학교 교수

A way of life perceived from the Chinese poem of Nam Hyo-On

- Focusing on wound and healing -

Lee Hyun-Jung, Lee Jun-Kyu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of Chugang Nam Hyo-On (1454~1492) from his Chinese poem and to figure out how he overcame and healed his agony and wound. Nam Hyo-On was one of the Saengyuksin who submitted Sureungbokuiso and spent his whole life with alcohol and wandering. Thus, he is known to be a hermit writer or stranger. He had to suffer poverty during his life thanks to his only one choice.

He was weak by nature but also feeble mentally as he always worried about death. In his 30s, he regarded himself as an aged man and always worried about death due to his frequent illness. Sometimes, he used to dream of being forever young.

He composed self-elegy poem that is about his death, which is the ever first self-elegy poem in our history. He sent it in his letter to his master Kim Jong Jik (1431-1492) in 1489. His agony and motivation of writing such poem can be conjectured from his master's reply and his self-elegy poem.

Nam Hyo-On tried to overcome and heal his real discontent and wound from his literary works. And it seems appropriate to regard him that he attempted to get compensation of his limitation and discontent from literature. We sometimes heal our wound by writings (or literature) and by reflecting through such writings. Nam Hyo-On reminded of his beloved person through his poet writing and healed his fear of wound of death.

Keyword : Nam Hyo-On, would, heal, life and death, being forever young

I. 서론

본고는 秋江 南孝溫(1454~1492)의 삶의 고뇌와 상처를 알아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난과 병, 죽음 등은 남

효온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그의 문집 속의 위와 같은 소재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바, 이는 그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기도 한다.

남효온은 방외인 또는 생육신의 일원으로 기억된다. 성종 9년(1478) 昭陵復位 상소를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상을 등진 채 술과 방랑으로 지냈고 결국 그게 빌미가 되어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 된 인물이다.¹⁾ 이러한 그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접수 ▶ 2012년 10월 31일 수정 ▶ 2012년 11월 28일 채택 ▶ 2012년 11월 29일

교신저자 이준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Tel 010-8885-7701

E-mail cklee10004@hanmail.net

가난과 연결되는데 그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煉丹을 거론하기도 했다.²⁾

그는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탓도 있었지만 항상 죽음을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허약하기도 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행복해짐으로써 마음의 건강을 보장받기도 한다. 30대에 자신을 늙은이라 칭했³⁾ 항상 병을 달고 살았기에 죽음은 항상 그의 걱정거리였다. 게다가 그의 문집 속에서 不老長生에 대한 기대와 생로병사의 극복에 대한 漢詩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남효온이 살면서 죽음을 목도한 일은 많았겠지만 죽음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은 1480년부터였다. 남효온은 너무나도 아끼고 의지했던 벗 安應世(1455~1480)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애도시를 남기는데 그의 문집 속에서 17題 34首의 애도시가 발견된다.⁴⁾

이러한 남효온의 애도시 중에서도 특이할만한 점은 바로 自挽詩를 썼다는 점이다. 자만시는 자신의 죽음을 상정하고 쓰는 것으로 그의 자만시는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것 중에 최초의 것이다. 자신이 죽기 3년 전인 36세에 자만시를 써서 스승인 金宗直(1431~1492)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남효온은 현실적 불만과 자신의 상처, 그리고 그 극복과 치유를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도하였다.⁵⁾ 또

한 자신의 한계와 불만을 문학을 통해서라도 보상받으려는 심리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남효온의 생애와 그 속에서 받은 상처와 좌절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를 토대로 남효온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으며 또 그것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그의 문집 속 한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효온의 진면모를 대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남효온의 생애와 상처

남효온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인 南恠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반해 모친 固城 李氏는 상당한 문벌 출신으로 증조부가 대제학[李岡], 조부는 영의정[李原], 부친은 대호군[李谷]이었다.⁶⁾

남효온은 金宗直(1431~1492)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金宏弼(1454~1504), 鄭汝昌(1450~1504), 金時習(1435~1493) 등과 가까이 지냈다. 世祖에 의하여 물가에 이상된 端宗의 생모 顯德王后의 昭陵을 復位하기 위해 24세에 幼學의 신분으로 上疏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의 상소가 빌미가 되어 남효온은 1504년(연산군 10) 부관참시 되고 이 때 그의 맏아들 南忠世도 화를 당하게 된다. 훈구 대신들은 왕이 소릉 추복에 관한 건의가 올라온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삼아 남효온을 비롯한 철없는 젊은이들이 과당을 이루어 올바른 학문을 능멸하고 부박한 언행을 일삼는다고 공격했다. 이 상소 사건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한 젊은 인생이 다 바쳐진 일이기도 했다.⁷⁾ 그로부터 2년 후인 1480년(26세)에는 모친의 명으로 進士科에 응시하여 합격

1)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애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 『대동한문학』. 2011;35. p.169.
 2) 「官家告糶不得」. 『秋江集』 1. p.230. “聞道煉丹能辟穀，寧將身世學神仙?” 이하 『추강집』에 대한 번역문은 박대현이 번역한 『추강집』 1,2.(민족문화추진회, 2007.)을 따랐다.
 3) 「漢江，送別德優歸嶺南田園，兼簡姪老娘。二首」其一，『秋江集』 1: “交深老秋江，幸爲子所取。生同甲戌年，居同禁城土，師同事畢齋，業同調訓話。”
 4) 남효온은 안응세가 죽은 26세(1480년) 때부터 자신이 죽기 3년 전인 35세(148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34수의 哀悼詩를 짓는다. 그 대상은 13명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古詩 7수, 律詩 10수, 絕句 13수로 어느 하나에 구애됨이 없이 비교적 골고루 지어졌다. 이 중 절친인 안응세를 애도한 작품은 9수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외에 가족을 애도하며 지은 작품들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둘째 아들인 종손, 만사 위인 이운언에 대한 애도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애도시의 대상 중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自挽詩’이다. 남효온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자만시를 써서 스승인 金宗直에게 보낸다. 그의 애도시에서는 亡者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5) 이러한 사실을 최근 인문학 연구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20세기 이후 실제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심리치료 이외에도 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글쓰기치료, 독서치료 등이 개별적으로, 때로는 예술치료에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리치료 이외에도 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글쓰기치료, 독서치료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때로는 예술치료에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김익진. 「마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문학적 허구의 역할」. 『인문치료』.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9.)
 6) 가계와 집안에 대한 소상한 내력에 대해서는 김성언. 『남효온의 삶과 시』. 태학사. 1997.와 이종범. 『사람열전2; 순례자의 노래』. 아침이슬. 2008.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 김성언. 『남효온의 삶과 시』. 태학사. 1997.

하였으나 文科는 끝내 포기하고 만다. 김시습도 출사를 권고하지만 소릉복위 후에 벼슬에 나아가도 늦지 않다면 ‘一言之下’에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⁸⁾ 그리고는 평생을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술과 방랑으로 여생을 보낸다.

한편 그는 평생 출사하지 않고 小學契, 竹林羽士와 같은 모임을 통해 벗들과 교류했다. 남효온에게 친구는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과도 같았고 그들을 통해 상처와 좌절을 치유했다. 그러던 중 그의 돌도 없는 벗 安應世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효온은 안응세가 죽은 26세 때부터 자신이 죽기 3년 전인 35세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34수의 애도시를 짓는다. 그 중 안응세를 애도한 작품이 총 8수인데, 여기에 그의 아내를 애도하는 시까지 합하면 9수가 되어 전체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秋江集》 내의 애도시들이 대상에 따라 적게는 1수, 많게는 4수가 지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 양만으로도 그가 남효온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안응세는 애도시뿐 아니라 지인에게 보낸 시문이나 자작시 등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오호라! 자정은 평소에 성정이 준엄했기 때문에 비록 세속을 백안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에게 대해 허여함이 적었다. 그러나 유독 나와 더불어 교분이 몹시 깊었다. 일찍이 내가 풍을 앓고 기력이 약해져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더니, 하루는 내게 와서 시를 얘기하고 밤중에 돌아갔다가 아침이 밝았을 때에 또 와서 내게 “어제 얘기를 나눌 때에 내 마음이 매우 평온했소. 길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대의 목은 병이 생각나 혼자 ‘某가 만약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회포를 말할까.’ 하

8) 「諡狀」. 『秋江集 2』, p.276. “公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母夫人을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母부인의 명으로 간간이 製述에 힘써 시험에 응하여 景字年(1480, 成宗11)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끝내 다시 대과에 응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벗 東峰 金悅卿이 공에게 ‘나는 세종의 두터운 知遇를 받았으니 이처럼 괴롭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은 나와 다르니 어찌 世道를 위하여 계획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에 응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열경 또한 다시 강요하지 않았다(公早孤, 事母夫人至孝. 不屑爲舉業, 而以母夫人命, 間黽勉製應試, 中庚子司馬, 遂不復赴舉. 其友東峯金悅卿謂公曰: ‘我則受英廟厚知, 爲此辛苦生活宜也, 公則異於我, 何不爲世道計也耶?’ 公曰: ‘復昭陵後赴舉未晚也.’ 悅卿亦不復強之.)”

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돌아갔소.”라고 하였다. 자정의 이 말이 낭랑히 오늘 귀에 들리는 듯 하거늘 어찌 병든 사람은 살아 있고 강건했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정의 슬픔이 나에게 옮겨 와 자정의 죽음을 슬퍼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정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되는 겨울 10월에 상자 속에서 이 책을 찾아 펼쳐 보고 슬퍼해 마지않는다.⁹⁾

위와 같이 병약했던 남효온에게 안응세가 병문안을 왔고 그간의 안부를 묻던 그들은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왜 왔는지도 잊은 채 신나게 이야기를 한다. 한참이 지나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안응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못 다한 이야기가 남았던 것일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친구는 다시 그를 찾아와서 아픈 남효온이 먼저 죽을까를 염려했다. 하지만 정작 먼저 죽게 된 것은 자신을 걱정해주던 친구였다. 그로부터 10년 지난 후, 안응세가 쓴 시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 시집을 펼쳐보니 그 때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¹⁰⁾ 죽음에는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데 남효온은 어찌서 안응세보다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일까? 《추강집》에서는 안응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詩文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양반 관료사회였던 조선에서 家長인 남효온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어찌면 가난은 그가 벼슬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예견돼 있던 것을 지도 모른다. 1486년 둘째 아들이 죽게 되는데 남효온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아들이 죽은 것만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사실 그가 32세였던 1486년은 그에게 닥친 시련의 해였다. 2월 6일에는 그의 둘째 아들 終孫이 죽고 7월에는 고모가 죽는다. 만사위 李溫彦도 서울을 떠나 김해로 가게 된다. 연속된 이별로 인해 심신이 너무도 괴로웠던 남효온은 고모의 장례식 후, 결국 호남으로 유

9) 『秋江冷話』. 『秋江集 2』, p.192. “嗚呼! 子挺平生性嚴厲, 雖不能白眼待俗, 於人少許可. 獨與余交分最深. 嘗憂余病風少氣力, 在世不久, 一日就余談詩, 夜分乃去, 朝明, 又來謂余曰: “昨話心期甚穩. 中道忽思君宿疾, 私自語曰: ‘某若先我化去, 則余誰與語懷?’, 掩泣而歸. 子挺此語, 琅琅若今日耳聞者, 豈意病者存而強者死, 以子挺之悲, 移我以悲子挺哉? 子挺仙化十年之冬十月, 披得此編於篋中, 悲不已.”

10) 『跋子挺詩卷』. 『秋江集 1』, p.225. “生涯薤露暗淒清, 綴玉聯珠紙上名. 燈漆有期明冷焰, 白楊閒事閉佳城. 黃公壚上餘春月, 太一宮前飛爽靈. 清夢覺來詩卷在, 浪吟酸淚下縱橫.”

람을 떠나고 만다.¹¹⁾

아들이 죽기 1년 전인 1485년에 썼던 시에는 아들에 대한 남효온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병든 아들을 생각하다〉

약한 체질과 飢寒 때문에 病魔가 침범하니
弱質飢寒致病侵
생각건대 아버가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네.
念爲人父媿難禁
아들 녀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밤중
憶 渠半夜愁無寐
촌가의 피리 소리는 마음 더욱 놀라게 하네.
村笛一聲驚動心¹²⁾

둘째 아들 終孫은 본디 허약한 체질이기도 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색이 짙었다. 게다가 아들은 지금 다른 집에 依託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飢寒으로 어린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自責과 병든 아이를 자신이 직접 돌보지 못한 부모로서의 죄의식으로 합해져서 承句에서의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 자책과 죄의식, 아들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은 轉句와 結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피리 소리에 놀라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그토록 걱정했던 아들은 이듬해 봄, 결국 죽고 만다. 같은 해(1485년) 개성에서 만사위 이운언에게 쓴 시를 살펴보자.

〈을사년(1485, 성종16) 9월에 開城에 있으면서 사위 和叔에게 부치다〉

吏部 집안 名聲은 李漢으로 말미암고
吏部家聲由李漢
張氏 집안의 顏子로는 藍田이 있었네.
張家顏子有藍田
이 늙은이 옹졸하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老翁守黑人從笑
사위가 훌륭하다고 세인들이 이야기하네
女婿乘龍世謾傳
붉은 잎 서리 맞아 가을 길이 좁아지고
赤葉得霜秋逕窄

11) 11월 고모가 죽은 후, 남효온은 호남지역 유람을 떠나게 된다. 「丙午除日公州國仙庵守歲」. 『秋江集 1』, p.352.를 통해 그가 12월에 호남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憶病子」. 『秋江集 1』, p.296.

성긴 울타리 뒤덮고서 들꽃이 타오르네

疎籬補缺野花然

살림살이 서투른지라 겨울옷이 얇으니

稻梁謀拙寒衣薄

案席 기대어 그대 생각에 하루가 일 년일세

隱几思君日似年¹³⁾

首聯에서는 옛날의 모범적인 사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구의 吏部는 吏部侍郎을 지낸 韓愈이고, 李漢은 한유의 사위이다. 이한은 한유의 遺文을 모아 문집을 간행하고 서문을 짓기도 했다. 2구의 장씨 집안은 北宋의 張載 집안이고, 藍田은 呂大臨을 가리키는데 그는 젊어서 장재에게 배웠고, 또 그의 아우 張戡의 사위가 되었다. 장전이 사람들에게 “내가 顏回를 얻어 사위로 삼았다(吾得顏回爲婿矣).”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대대로 명문이었던 남효온의 가문과도 관련이 있다. 남효온의 부친 남전이 생원시에 합격한 후, 뚜렷한 관직 없이 요절하였고 남효온 또한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랑에 전념하였기에 家勢가 몰락하였다. 남효온은 부득이하게 벼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련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대신해 관직에 나아가 가문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만사위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남효온은 이한이나 여대림이 그랬던 것처럼 사위가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줄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절친의 죽음과 가난으로 인한 아들의 죽음, 그리고 믿었던 사위의 죽음은 남효온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8년 인생에서 가난과 병, 죽음 등은 그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그의 문집 속에는 위와 같은 소재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그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Ⅲ. 삶의 극복과 치유

문학에 치료라는 말을 굳이 접목시키지 않더라도 문학의 주요 기능이 허구적 세계에서의 객관화를 통한 인간의 정서 치유에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3) 「乙巳九月, 在開城, 寄女婿和叔, 二首」其二. 『秋江集 1』, p.227.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생각을 종이 위에 펼쳐놓는 행위는 효과적인 치료행위다.¹⁴⁾

또 하나의 문학의 중요한 효용들 중 하나는 일탈이다. 문학을 통한 일탈은 다른 여가 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중압감을 느끼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탈은 일상의 틀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일상의 틀은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제도와 생활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내면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사고의 틀을 의미할 수도 있다.¹⁵⁾

남효온은 태생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다. 출사를 단념하면서 술과 방랑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 데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된다. 술과 방랑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매순간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로장생을 꿈꾸며 글을 쓰기도 했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글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상처와 좌절을 치유해보려는 몸부림이었다.

1. 不老長生에 대한 기대

남효온은 늘상 자신을 늙은이라 칭했지만 그가 세상을 등진 해는 1492년, 그의 나이 38세 때였다. 1489년 그가 죽기 3년 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自挽詩를 짓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 남효온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의 글을 읽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不老長生을 바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남효온은 여러 작품을 통해 불로장생에 대한 그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 <藥壺賦>를 먼저 살펴보자.

이에 침중의 《홍보》를 얻어서	茲得枕中之寶
계견의 소망을 둘 뿐이지만	顧有鷄犬之望
어찌리오 연분이 적어서	奈何緣淺分薄
한갓 세월만 허비하였다오	徒費居諸
금을 먹고 옥을 복용하나	餌金服玉

삼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三尸如初
구름을 삼키고 달을 마시나	嚙雲吸月
더럽고 거칩은 제거되지 않았소	麤穢不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고	歲年流亡
몸과 정신은 날로 마르니	形神日枯
원컨대 진묘한 비결을 전수하여	願授妙眞之訣
불로장생의 계책을 삼게 하소서	以爲長年之圖 ¹⁶⁾

<藥壺賦>는 東漢 때 地仙으로 일컬어진 費長方을 작품에 도입하여 그가 체험한 藥壺의 신선세계와 鍊丹의 비방을 다루는 한편 장생의 眞訣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藥壺賦>는 크게 ①客의 등장과 藥翁의 만남/藥壺의 세계 ②客과 藥翁과의 대화 ③客의 깨달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¹⁷⁾ 인용문은 客이 자신의 심사를 말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의 客은 비장방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남효온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월만 허비했다는 그의 고백이 불로장생의 욕망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 구의 《鴻寶》는 한나라 劉安이 베개 속에 秘藏하였던 도술 서적으로 《추강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이다. 금과 옥을 복용했다는 것은 丹藥, 즉 道教에서 神仙術을 수련하는 이들이 丹砂 등의 광물을 이용해서 만든 약물인데 여기에는 水銀 등의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역대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객은 낮은 관직이었던 데다 알아주는 이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죽기보다는 장생을 바라고 있다. 객이 장생의 방법이 단약이나 신선술이 아닌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하는 것이라며 끝을 맺은 것¹⁸⁾으로 볼 때 <약호부>를 지은 목적이 道仙思想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유가로서의 철저한 자세를 재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신선이 되지 못한 비장방을 내세웠을 때부터 정해져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비장방과 약용이라는 역사 속의 인

14) 김익진. 위의 논문. p.55.

15) 김익진. 위의 논문. p.53.

16) 「藥壺賦」. 『秋江集 1』. pp.30-31.

17) 김종구. 「秋江 南孝溫 文學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p.140.

18) 「藥壺賦」. 『秋江集 1』. pp.35-36. “마음이 중정하고 순수함 이어 만 가지 이치를 모아 자연스럽게 되리라. …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치가 하나일 뿐이니 신선이 비록 신비스럽다지만 이치 밖의 사물이 아니라. 나는 처음 밖에서 찾아 얻지 못했더니 이제 몸에 돌이켜서 바야흐로 알았다오.(天地之間, 惟理一也. … 神仙雖秘, 理外無物. 余初求外而不得, 乃今反身而方識. 心中正而純粹兮, 會萬理而自然.)”

물을 등장시켜 자신의 상황에 투영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儒子인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지만 그가 삶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感興이 일어〉

매복은 세상 명예를 구할 마음 없었고
梅福無心釣世名
베개 속의 《홍보》로 단을 이루려 하였네.
枕中鴻寶要丹成
그 누가 나를 위하여 이별주 부어주고
何人爲酌河梁酒
이별가 가늘게 불러 이 마음 위로할까?
細唱驪駒慰此情¹⁹⁾

남효온이 丹과 《홍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불로장생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起句에서 언급된 梅福은 前漢 말기에 南昌尉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王莽(B.C.45~A.D.23)이 제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은둔하여 도술을 배워서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그가 매복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었다.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잘 드러난다.

〈丘仲仁을 애도하며〉

단약을 다스리며 묘리 이미 알았으니
治丹已領執銜轡
천태산 약초 캐기를 남몰래 기약했소
采藥天台暗有期
과거 공부 사람 해쳐 이제 세상 떠나니
科業剝人今鬼錄
가련하다. 《鴻寶》를 세인들이 함께 비웃네
可憐鴻寶世共嗤²⁰⁾

이 시는 남효온이 35세(1489)에 지은 壺隱 丘永安(字 仲仁)을 위한 만시이다. 여기에서는 남효온의 구중인에 대한 관점과 道家의 신선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구중인이 몰두했던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秋江冷話〉에서 구

중인에 대해 ‘신선술을 즐기면서 명리를 좋아했다.(喜仙而好名利)’라고 서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承句에 언급된 내용은 한나라 明帝 때의 고사로 劉晨과 阮肇가 함께 천태산에서 약을 캐다가 길을 잃었는데 仙界의 여인들을 만나 반년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세월이 흘러 자신의 7대손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일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중인은 평소에 단약과 신선술에 대해 탐닉했던 듯하다. 그리하여 轉句에서 과거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가의 신선술에 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는 結句에서 신선술과 단약에 의존한 구중인을 세상 사람 모두가 비웃고 있다고 말하며 결론을 내린다. 〈약호부〉와 마찬가지로 구중인을 애도하는 이 시에서도 도가의 신선술에 대한 남효온의 비판적인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시는 조금 흥미롭다.

〈관가에 환곡을 청했으나 얻지 못하다〉

미친 늙은이 추강을 그 누가 동정할까
秋江狂老有誰憐
미륵 같은 모습이라 하찮게 여기는구나.
彌勒形模不直錢
가도의 형편이 작년부터 더욱 곤궁하니
賈島益窮從去歲
광문 선생이 무슨 수로 올해를 넘길까?
廣文何計卒今年
처량히 우는 쥐조차 굶어죽을 지경이라
淒涼鳴鼠欲飢死
영락한 이내 심정 갑절이나 암담하구나.
零落殘魂倍黯然
듣건대 단을 익히면 곡식 먹지 않는다니
聞道煉丹能辟穀
차라리 이 몸으로 신선술이나 배워볼까?
寧將身世學神仙²¹⁾

남효온은 가난했다. 가난으로 아들을 떠나보냈고 환곡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마저도 얻지 못했다. 頷聯에서 그는 자신의 빈궁함을 賈島와 廣文에 비기고 있다. 가도는 당나라 시인으로 평생토록 몸이 수척하였고 몹시 곤궁한 사람이고 광문 선생은 당나라

19) 「感興」其5. 『秋江集 1』. p.357.

20) 「悼丘仲仁, 二首」其二. 『秋江集 1』. p.329.

21) 「官家告糶不得」. 『秋江集 1』. p.230.

때 廣文館博士를 지낸 鄭度을 가리키는데 항상 가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남효온은 이런 인물들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고 이어지는 頸聯에서 곤궁한 자신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尾聯이다. 그는 가난을 타계하는 방법으로 煉丹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으로 인해 남효온은 자신이 여러 작품에서 그토록 비난했던 신선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몸소 실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날에도 자신의 심사를 달래려 시를 썼던 것이다.

2. 현실적 삶에 대한 비판과 극복

남효온은 희망을 안고 올린 상소문에서 좌절을 느끼고 출사에 대한 꿈을 버린다. 그리고는 술과 방랑으로 점철된 삶을 보낸다. 남효온은 자신이 죽기 3년 전인 35세(1489년, 성종20)에 自挽詩를 짓는다. 자만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짓는 시로 타인에 의해 작성되는 일반 만시와는 달리 작자 자신의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死者로서의 시각과 목소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전에 자손들에게 남기는 遺言, 遺令, 遺詔, 臨終詩와도 창작상황 면에서 구별된다.²²⁾ 자만시를 쓸 때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죽은 자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방식을 취한다. 자만시의 이런 특성들은 자연 죽음을 통해 삶을 조명해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자만시의 이런 특수성은 매우 의도적이고 허구적인 자기표현의 방식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²³⁾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글은 세속적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지 못했기에 못마땅한 세상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싣는 것을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²⁴⁾

22) 권혁명. 위의 논문. p.131.

23) 임준철. 「自挽詩의 詩의 系譜와 朝鮮前期의 自挽詩」, 『古典文學研究』. 2007;31. p.322.

24) 안대회는 「조선후기 自撰墓誌銘 연구」에서 “묘지명의 창작의 동기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인은 다른 데 있다. 즉, 일반 묘지명의 내용이 공허하고 정형화된 서술을 함으로써 생

남효온의 자만시에서 특별한 점은 자만시를 지어 김종직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이 시는 사실 스승인 김종직에게 올리는 편지의 별지에 쓰여 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효온에게 김종직은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런 김종직에게 자만시를 보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자만시 앞에 붙어있는 自序를 보면 그가 자만시를 쓰게 된 저간의 사정이 드러난다.

이곳의 제자는 병들지 않았을 때, 밖으로 六脈을 짚고 안으로 오장을 살피며, 八卦를 두루 찾고 龍虎를 참고하여 이에 수명이 조석 간에 달렸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가을이 끝날 무렵, 집안의 액운이 크게 겹쳐 喪事가 반복되니,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이에 마음이 허하고 미친 듯 두근거리는 병을 얻어 요망하고 실없는 말을 절도 없이 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약물의 힘을 입어 큰 병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남은 독기가 아직 거세니, 지난번에 얻었던 점괘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僑居에서 挽歌 네 편을 지었는데, 아들 녀석에게 맡겨 다시 淨書한 뒤에 선생의 자리 아래에 올립니다.²⁵⁾

남효온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만시를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지인의 계속된 죽음에 의한 고통으로 시작된 放浪과 飲酒는 남효온의 심신을 더욱더 쇠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지은 시를 김종직에게 보이기 위해 다시 깨끗하게 써서 보낸 데서 자만시를 지은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만시를 본 김종직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동감을 상실한 폐단의 극복에 일차적 동기가 있다. 조선후기 고문가들은 비지문이 이러한 정형화와 타성화에 반대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 다른 한편으로 자찬묘지명은 불우한 삶에 대한 자아연민의 글이기도 하다. 세속적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지 못한 문인들이 못마땅한 세상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자명에 실었다.”라고 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韓國漢文學研究』 31. pp.246-249.

25)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 『秋江集 1』, p.116. “……此中小子, 未病時, 外診六脈, 內觀五臟, 旁探八卦, 參之龍虎, 乃知大數近在朝夕. 去秋之杪, 家厄深重, 喪事重重, 奔走之間, 得心虛狂悸之病, 妖言妄語, 發作無節. 幸賴藥力, 大病稍歇, 而餘毒尚梗, 曩所得不虛也. 僑居, 乃作挽歌四篇, 付之豚犬, 更繕寫呈先生座下.”

우리 추장은 세상이 여섯 가지 액운을 슬퍼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서른하고 여섯 해 동안, 언제나 세상의 시기를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그 자찬이 매우 깊다 하겠고, 또 못내 이 세상을 잊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니, 이를 어찌 갑자기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사람의 소리라 하겠나? … 나는 일찍이 들건대, 옛사람은 흔히 미리 자기 문힐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다고 하고, 또 일찍이 보니, 시골 노인이 스스로 관을 만들고 衣衾 斂襲의 물건까지도 빠짐 없이 다 준비하고, 항상 그 관속에 누워도 보며 죽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이는 다만 미리 준비해 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러는 은연히 오래 살기를 祈禳하는 것이라고 비웃는 자도 있다네. 지금 추장의 自挽詩도 이런 류가 아닌 가? 이 말은 농담이네.²⁶⁾

김종직 또한 남효온이 자만시를 쓴 것이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 농담이라고 밝히고는 있기는 하지만 김종직 또한 남효온의 자만시를 곧 죽을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과거를 보지 않아 세상에 드러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기에 남효온이 자만시에서 자신을 알아줄 것을 바라는 것은 일견 수긍이 된다.

〈이날 밤에 술이 열큰하여 감회가 있어 짓다〉

인생은 슬픔 즐거움 반반이다가	人生半哀樂
순식간에 지난 일이 되어버리니	造次成今古
번성하고 화려한 오늘의 이 몸	繁華今日身
적막하게 내일의 흙이 되리라	寂寞明日土
어찌 한 움큼의 흙을 얻으려고	安得土一抔
부질없이 공명 좇아 괴로워할까	浪逐浮名苦
벗 데리고 이렇게 배에 오르니	携朋此登舟
하늘 가득한 구름 먼 포구 가렸네	屯雲迷極浦
큰 강이 온통 산 모습 비추니	大江純浸山
움직이는 그림자 하늘 흔들고	動影掀天宇
아득한 양쪽 언덕 캄캄해지니	蒼茫兩岸黑
신령스런 비 내리려는 것이리라	欲作神靈雨

26) 『答南秋江書』, 『秋江集 2』, pp.304-305. “……吾秋江則似傷其在世六厄, 而竟云: ‘三十六年間, 長被物情猜.’, 其自讚也深矣, 且有拳拳不忘斯世之慮焉. 是豈濫先朝露之人哉? …… 僕嘗聞古之人多有豫作壽藏之兆者, 又嘗見鄉中老人, 自治棺槨, 至其衣衾斂襲之物, 無一不備, 常常自臥其中, 以迄沒齒, 此蓋非徒爲緩急之用, 或有晒其暗行祈禳之術者焉. 今秋江之擬挽, 無乃類是耶? 斯言戲爾……”

거룻배에 걸터앉아 술 단지 여니	梅樓開瓦甌
흥취와 감회가 종횡으로 교차하네	興與感交午
정신이 맑아 온갖 걱정 사라지니	神清萬慮空
병든 몸에도 날개가 돋으려 하네	病骨欲生羽 ²⁷⁾

제목의 ‘이날 밤’은 바로 스승에게 자만시를 보낸 날이다. 이 날도 남효온은 여전히 술을 마셨다. 1~4구에서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 죽게 된다는 인생무상의 허무함이 느껴진다. 5~6구는 일평생 富貴·功名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자신에 대한 위로 섞인 자조인 듯하다. 그리고 이어진 7~12구에서의 어둑어둑한 경치는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다가온다.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슬프고 암울한 상황은 마지막 4구에서 밝게 변화한다. 벗과 함께 거룻배를 타고 한강을 떠다니면서 마시는 한 잔 술에 온갖 세상 시름을 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효온의 <自挽四章>은 죽음-장례-매장-사후세계-매장 이후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도연명의 자만시와 유사하다. 하지만 상장례의 과정이 선조적으로 전개되는 도연명의 작품과 달리 남효온의 시는 상장례의 과정이 일정하게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 삽입된 사후 세계가 부각된다.²⁸⁾

세상에 있을 때 살려고 했던 마음	在世欲生心
죽음과 함께 적막한 데로 돌아가네	與化歸寂寞
여희가 시집을 때 운 것 후회하고	嬾姬悔來泣
약상이 고향으로 돌아간 듯하도다	弱喪歸故國 ²⁹⁾

위 시를 살펴보면 남효온의 죽음에 대해 독특한 시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희는 晉獻公의 후처로, 艾 浬 封人의 딸이었고, 弱喪은 어려서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는 《莊子·齊物論》³⁰⁾에서 나온 것으로 생전에는 죽음을 싫어했

27) 『是夜酒酣, 有感而作』, 『秋江集 1』, p.125.

28) 임준철. 위의 논문. p.333.

29) 『自挽四章, 上佔畢齋先生』 其一, 『秋江集 1』, p.119.

30) 『莊子·齊物論』: “내 어찌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된 일이 아닐 줄 알겠는가.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줄 알겠는가. 여희가 진나라로 처음 왔을 때 울어서 눈물이 옷깃을 적셨으나 궁궐에서 왕과 함께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뒤로는 처

으나 사후에는 죽음이 도리어 즐겁고 편안하다는 말이다. 자만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언급은 남효온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³¹⁾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현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숙도와 함께 시운을 나눔에 ‘楚江巫峽半雲雨’를 얻어 仲仁에게 부치다〉

북쪽 대궐에 일찍이 글을 올리니	北闕曾上書
여론이 자못 어지럽게 들끓었지	物論頗紛靡
공연히 손창윤 ³²⁾ 이란 이름만 얻어	謾得孫子號
도롱이 걸치고 추강에 돌아왔네	短蓑來秋江
가난을 견디고 굶주림도 견디니	耐貧仍耐飢
남은 곡식은 질항아리로 하나뿐	留粟一瓦甔
십 년 세월 낚싯대만 지키며	十年守釣竿
죽대 봉창에 앉았다 누웠노라	坐臥隨蓬窗 ³³⁾

이 시는 仲仁 곧 丘永安에게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토로한 작품이다. 남효온은 소릉북위 상소 후, 그는 출사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방랑하는 것으로 평생을 보냈다. 10여년의 방랑, 가난함 속에서 친구에게 보낸 시에서의 그의 어조는 마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하다.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던 젊은 남효온이 자의반타의반으로 방랑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세에 대한 불만은 어찌면 상소를 올리면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만사 네 편을 지어 估畢齋 선생께 올리다〉
다만 한스럽기는 사람이었을 때에 但恨爲人時
참혹하게 여섯 가지 액이 있었다네. 慘慘有六厄

음에 울었던 일을 후회했다.”

31) 제2수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 길 불로장생할 사람이 그 누가 있으랴?(苒苒征途上, 孰有長年客) ...”라고 한 것과 제3수에서 “...어찌 알리오? 사후의 즐거움이 생전의 재앙보다 더 나은 줄을(焉知死後樂, 勝於生前災)...”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32) 孫昌胤 : 당나라 사람이다. 손창윤이 당시에 폐해진 冠禮를 스스로 행하고 이튿날 조정에 가서 “내 아들이 관례를 마쳤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명하게 있었고, 京兆尹이 발끈 화를 내며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조운은 비난하지 않고 손창윤을 괴이하게 여긴 것이다.

33) 「同叔度分韻, 得楚江巫峽半雲雨寄仲仁, 七首.」 『秋江集 1』, p.148.

모습이 추하여 여색이 다가오지 않고 貌醜色不近
집이 가난하여 술이 넉넉지 못했지. 家貧酒不足
행실이 더러워서 미치광이로 불렸고 行穢招狂號
허리가 곧아 높은 사람 노엽게 했지 腰直怒尊客
신발이 뚫어져 발꿈치가 돌에 닿고 履穿踵觸石
집이 낮아 서까래가 이마 때렸다네. 屋矮椽打額³⁴⁾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자신에 대한 비하로 이어진다. 급기야 “서른하고 여섯 해 사는 동안 언제나 세인의 시기를 받았네.”³⁵⁾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사후의 세계는 그 불행을 보상받는 공간으로써 존재한다. 남효온의 자만시에서 그려지는 사후세계는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그에게 긍정적인 세상이다. 사후의 세계는 이승의 세계와 확연히 분리된다. 남효온에게 현실의 공간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공간이었다. 하지만 사후의 세상은 ‘하나도 가슴속에 걸린 것이 없는’ 공간이자 이승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다. 이승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남효온이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남효온이 죽음을 통해 만난 세계는 불우했던 생전과는 대비되는 곳이다.³⁶⁾ 상제가 충성을 알아주고, 재주를 좋아하며,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명성이 드날리는 곳이다. 그러한 세계는 추강이 생전에 겪었던 현실의 세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³⁷⁾

자만시를 통해 우리는 남효온은 현실과는 다른 세상으로 사후세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이상을 인정해주는 군주를 만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고자 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자만시를 썼다면 그것을 굳이 스승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시인은 불행한 과거

34)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 其一. 『秋江集 1』, p.120.

35)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 其三. 『秋江集 1』, p.122: “...내 일찍이 인간의 몸이었을 때 무용한 사람이라 온 세상 비웃었네. 현인은 나의 방랑함을 미워하고 귀인은 나의 영락함을 능멸했지. 궁귀는 쫓아도 오히려 달라붙고 동전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았네. 서른하고 여섯 해 사는 동안 언제나 세인의 시기를 받았네(余嘗爲人時, 舉世嘲散材. 賢人憎放浪, 貴人陵傾頽. 窮鬼逐猶隨, 孔方絕不徠. 三十六年間, 長被物情猜)...”

36)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 其三. 『秋江集 1』, pp.121-122.: “내게 말하되 저승에 돌아가면 음식은 어디에 의탁할까 하네. 어찌 알리오 사후의 즐거움이 생전의 재앙보다 더 나은 줄을.(謂我歸重泉, 食飲焉托哉. 焉知死後樂, 勝於生前災.)”

37) 김남이. 위의 논문. p.31.

를 기억하면서 더 불행한 현재의 허망한 마음을 치유한다고 한다. 그것이 사소한 개인의 체험에 속하는 사안일지라도, 문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그것을 음미한다. 문학은 기억 저편에 있는 망각을 일깨우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이루고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탐색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된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돕는다.³⁸⁾

남효온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고 그것만으로 1차적 치유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스승에게 자신의 최후의 순간을 가정하는 글을 보냈다. 그 세계는 현세의 괴로움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희망찬 곳이었다. 스승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 행위였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속의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남효온의 삶과 그 삶을 관통하는 상처와 좌절을 알아보고 그가 상처와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30대부터 자신을 늙은이라 칭했을 정도로 병약했던 남효온에게 있어 죽음은 늘 자신을 괴롭히는 굴레와 같았다.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었고 그것은 남효온의 문집 속의 不老長生에 대한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만시 작가인 남효온은 스승에게 부치는 편지 속에 자만시를 淨書하여 보낸다. 여기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해버린 功名에 대한 미련이 드러났고 그것은 결국 자만시 속에서 현세를 부정하는 감정과 내세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남효온에게 글쓰기는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추모의 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자만시는 남효온이 그의 스승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는 고백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

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남효온도 삶에서 받게 된 상처와 고뇌에 대한 치유의 과정으로 시를 쓰게 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남효온. 『秋江集』, 韓國文集叢刊 16.
 남효온 저, 박대현 역. 『국역 추강집』. 민족문화추진회. 2007.
 최재남. 『韓國 哀悼詩 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권혁명. 「南孝溫의 自挽詩 研究」. 『東洋漢文學研究』. 2008;27.
 김남이. 「家系·師友 關係를 통해 살펴본 15세기 지식인 남효온」. 『東洋漢文學研究』. 2010;26. pp.26-35.
 김익진. 「마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문학적 허구의 역할」. 『인문치료』.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9.
 김종구. 「秋江 南孝溫 文學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손찬식. 「남효온 시의 정서-飄泊과 그리움」. 『국어교육』. 1995.
 안대희. 『한국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임준철. 「조선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2003.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010;25
 임준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2007;31.
 임준철.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特性」. 『어문연구』. 2010;38.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애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 『대동한문학』. 2011;35.
 최재남. 「뫼子詩의 창작전통과 양식적 특성」. 『大東漢文學』. 2010;30.

38) 엄찬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010;25. p.433.